

**The Gospel of Mark**

Sermon 24

Title: "The death of John the baptist"

Scripture: Mark 6:14-29

Date preached: February 12th 2023

**Scripture: Mark 6:14-29**

**14** Now King Herod heard *of Him*, for His name had become well known. And he said, "John the Baptist is risen from the dead, and therefore these powers are at work in him."

**15** Others said, "It is Elijah."

And others said, "It is the Prophet, or like one of the prophets."

**16** But when Herod heard, he said, "This is John, whom I beheaded; he has been raised from the dead!" **17** For Herod himself had sent and laid hold of John, and bound him in prison for the sake of Herodias, his brother Philip's wife; for he had married her. **18** Because John had said to Herod, "It is not lawful for you to have your brother's wife." **19** Therefore Herodias held it against him and wanted to kill him, but she could not; **20** for Herod feared John, knowing that he *was* a just and holy man, and he protected him. And when he heard him, he did many things, and heard him gladly. **21** Then an opportune day came when Herod on his birthday gave a feast for his nobles, the high officers, and the chief *men* of Galilee. **22** And when Herodias' daughter herself came in and danced, and pleased Herod and those who sat with him, the king said to the girl, "Ask me whatever you want, and I will give *it* to you." **23** He also swore to her, "Whatever you ask me, I will give you, up to half my kingdom."

**24** So she went out and said to her mother, "What shall I ask?"

And she said, "The head of John the Baptist!"

**25** Immediately she came in with haste to the king and asked, saying, "I want you to give me at once the head of John the Baptist on a platter."

**26** And the king was exceedingly sorry; *yet*, because of the oaths and because of those who sat with him, he did not want to refuse her. **27** Immediately the king sent an executioner and commanded his head to be brought. And he went and beheaded him in prison, **28** brought his head on a platter, and gave it to the girl; and the girl gave it to her mother. **29** When his disciples heard *of it*, they came and took away his corpse and laid it in a tomb.

**14**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져 마침내 헤롯왕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사람들은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그가 기적을 행하는 이런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 하고 말하였다. **15** 어떤 사람은 그를 엘리야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옛날의 예언자와 같은 분이라고 하였으나. **16** 헤롯은 듣고 "내가 목 베어 죽인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하였다.

**17** 헤롯은 전에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일로 요한을 잡아 가둔 일이 있었다. **18** 그것은 요한이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것은 잘못입니다" 하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19-20**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 하였으나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겨 두려워하며 보호하기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헤롯은 요한의 말을 들을 때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그의 말을 즐겨 듣곤 하였다. **21** 마침 헤로디아에게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고위 군 지휘관들과 갈릴리의 귀빈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22**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춰서 헤롯과 참석한 손님들을 즐겁게 하자 왕은 소녀에게 "네 소원이 무엇인지 말해 보아라. **23**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하고 약속하였다. **24**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요구

할까요?” 하고 묻자 그녀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여라” 하고 대답하였다.

25 그래서 소녀는 급히 왕에게 가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지금 곧 제게 주십시오” 하였다. 26 왕은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자기가 한 약속과 잔치 자리에 앉아 있는 손님들 때문에 소녀의 요구를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 27 왕이 즉시 사형 집행인을 보내며 요한의 목을 베어 오라고 명령하자 그는 감옥에 가서 요한의 목을 베어. 28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었으며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갖다 주었다. 29 요한의 제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였다.

### **Review**

Before we look at today's lengthy passage of scripture let's quickly remind ourselves of where we are in the story. Last time we saw how Jesus sent out His disciples in order to have a greater spread and impact of the gospel.

These events took place some time after Jesus' second visit to His home-town. This as we saw did not go well. Initially the people were awed and amazed by the authority and wisdom of the Lord Jesus. However this soon turned into offence. The offence stemmed from the fact that they thought they knew Jesus. They considered Him to be one of them. They knew His family, His occupation and His background. So for Him to stand up in the synagogue and ask them to listen and obey His words made them angry. As a consequence they rejected Him. Although scripture doesn't mention the Lord Jesus' emotions following this rejection we might imagine He was disappointed.

We all have a greater degree of love and concern for those geographically or physically close to us. When there is a natural disaster in a nearby town for example we feel more sympathy for the people there because they are like us and share a common culture. However Jesus did not let this setback put Him off. He continued to travel around preaching and teaching.

Mark then tells us about how Jesus sent out His disciples. This was a trial to see how they would fare without His constant input or involvement. He knew that soon He would depart and they must continue the Kingdom work without Him. They were to be paired up and sent out, to in effect do the work that Jesus had been doing. Preaching, teaching, healing and casting out unclean spirits.

Before they were sent out Jesus gave them very explicit instructions. They were to only take a staff with them on their travels. They were not to take a bag, extra sandals, additional clothes, items of food or any money. There was a very good reason for this. The reason was that they were to rely totally on God for all their needs. If they trusted in God He would provide for them.

The Lord Jesus also told them to behave in a particular way as they travelled. When they arrived in a town or village they were to stay in just one location. There were several reasons for this.

Firstly constantly moving around or seeming to be unhappy over where to stay might reflect badly on the gospel message. Secondly it would stop people arguing or fighting over where the disciples stayed. Thirdly it made life easier for the disciples. All they had to do was find one place to stay and then focus on the work at hand. Finally it was a reminder to them that they were not on a social trip. This was a time for intense work and effort. The final thing the Lord Jesus tells them is how to respond to those that reject them. They are literally to wipe the dust off their feet as they leave the town. They were not to carry the rejection with them and were to leave these people to God's

judgement.

This work Mark tells us was a great success. Empowered by the Holy Spirit the disciples preached that people should repent, healed the sick and cast out many demons. This is where we finished last time. Today Mark steps back from telling us about the exploits of Jesus and His disciples to tell us about another tragic event taking place at this same time.

오늘의 긴 성경 구절을 보기 전에 우리가 이야기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 재빨리 상기시켜 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복음의 더 큰 전파와 영향을 미치기 위해 어떻게 제자들을 파송하셨는지를 보았습니다. 이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고향을 두 번째로 방문하신 후 얼마 후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본 이것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주 예수의 권위와 지혜에 경외하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곧 공격으로 바뀌었다. 공격은 그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그들 중 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가족과 직업과 배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회당에 서서 그들에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그들을 화나게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분을 거부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거절 이후의 주 예수님의 감정을 언급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분이 실망하셨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 더 큰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마을에 자연 재해가 발생하면 그곳 사람들이 우리와 같고 공통 문화를 공유하기 때문에 더 많은 동정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좌절로 인해 그분을 미루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설교와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계속 여행했습니다. 그런 다음 마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보내셨는지에 대해 알려 줍니다. 이것은 그분의 끊임없는 개입이나 개입 없이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곧 떠날 것이며 그들이 그분 없이 왕국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은 짝을 지어 파견되어 사실상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내지기 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매우 분명한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들은 여행할 때 직원만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은 가방, 여벌 신, 여벌 옷, 음식 또는 돈을 가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모든 필요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은 그들을 부양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또한 그들이 여행할 때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도시나 마을에 도착하면 한 곳에만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끊임없이 이동하거나 머무를 곳이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복음 메시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것은 제자들이 머물렀던 곳을 놓고 사람들이 다투거나 다투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셋째로 그것은 제자들의 삶을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머물 곳을 찾은 다음 당면한 일에 집중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사고 여행 중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치열한 노력과 노력이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주 예수님이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은 그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입니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성읍을 떠날 때 발에 묻은 먼지를 닦아야 합니다. 그들은 거부감을 가지고 다니지 않고 이 백성을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야 했습니다. Mark가 말하는 이 작업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라고 전파했습니다. 지난번에 끝낸 곳입니다. 오늘 마가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공적에 대해 말하는 것에서 물러나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또 다른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4 Now King Herod heard of Him, for His name had become well known. And he said, “John the Baptist is risen from the dead, and therefore these powers are at work in him.” 15 Others said, “It is Elijah.” And others said, “It is the Prophet, or like one of the prophets.”**

Mark pauses briefly in his account of Jesus to tell us about the horrific martyrdom of John the baptist. Most likely this occurred at, or around the same time that the disciples were being sent out. It is instructive in a number of ways. Obviously it tells us the fate of John. But it also tells us something about what people were saying about Jesus. The Lord Jesus had become a national topic of conversation. People were arguing and debating about who exactly He was, and where His power came from.

The first thing we are told here is that news about Jesus had reached King Herod. As always I need to specify which of the six biblical Herod's we are discussing. This Herod is Herod Antipas. He was of Idumean descent and was born in 20 BC. When his father Herod the great died his kingdom was divided among his four sons. This was why he is known as a tetrarch (a ruler of a fourth part). His part comprised Perea and Galilee. He had authority over this area from 4 BC to 39 AD. Technically speaking Herod Antipas was not a king although Mark refers to him here as such. This was his, and particularly his wife's ambition. It was also how he was known by the people in that region.

Mark tells us that Jesus' name and presumably accounts of what He had been doing had reached Herod. In those volatile and rebellious times rulers had to know what political movements were flourishing in their area. No doubt Herod had spies on the ground who watched and reported back to him. So what was being reported about Jesus? The main issue revolved around the identity of Jesus. Or to put it another way, how was it that this man called Jesus had these amazing powers. Herod who as we will see is living with a very guilty conscience thought He was John the baptist. His thinking seems to be that John the baptist had risen from the dead. Jesus was just the resurrected John. Or possibly that the spirit of John was occupying Jesus and this was how He was able to perform amazing signs. Today as we read these things we might find it strange that people would hold such views. But we must remember that these were deeply superstitious times. People also had an expectation that something supernatural was about to happen.

Other people dismissed the John the baptist theory and said that Jesus must be Elijah. Again this may seem strange to us but remember in Malachi 4:5 it had been prophesied that Elijah would come before the Messiah did. Some people concluded that Jesus was "a prophet" or like one of the Old Testament prophets. This was because He brought a strong message from God, and He was able to do miraculous things. Let us read on.

마가는 세례 요한의 끔찍한 순교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위해 예수에 대한 그의 이야기에서 잠시 멈춥니다. 이것은 아마도 제자들이 파송될 때 또는 거의 동시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러모로 유익합니다. 분명히 그것은 우리에게 요한의 운명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말한 것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주 예수님은 전국적인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정확히 누구이며 그의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해 논쟁하고 토론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처음 듣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헤롯 왕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듯이 나는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6명의 성서적 헤롯 중 누구인지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는 Idumean 후손이며 BC 20 년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헤롯 대왕이 죽자 그의 왕국은 그의 네 아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이것이 그가 분봉왕(네 번째 부분의 통치자)으로 알려진 이유입니다. 그의 역할은 페레아와 갈릴리였습니다. 그는 기원전 4 년부터 서기 39 년까지 이 지역에 대한 권한을 가졌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헤롯 안티파스는 왕이 아니었지만 여기서는 마가가 그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특히 그의 아내의 야망이었

습니다. 또한 그 지역 사람들에게 그가 알려진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설명이 헤롯에게 전해졌음을 알려줍니다. 그 변덕스럽고 반항적인 시대에 통치자들은 그들의 지역에서 어떤 정치 운동이 번성하고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헤롯은 감시하고 그에게 다시 보고하는 정탐꾼들을 지상에 두었습니다. 그러면 예수에 대해 무엇이라고 보도되고 있었습니까? 주요 쟁점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었다.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라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보게 될 헤롯은 자신이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며 매우 죄의식을 품고 살고 있습니다. 그의 생각은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요한일 뿐입니다. 혹은 요한의 영이 예수께 사로잡혀 놀라운 표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시가 매우 미신적인 시대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또한 초자연적인 일이 곧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이론을 일축하고 예수가 엘리야임에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이것은 우리에게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말라기 4:5에서 엘리야가 메시아보다 먼저 올 것이라고 예언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선지자"이거나 구약의 선지자 중 한 사람과 같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가져왔고 기적을 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읽어 봅시다.

**16 But when Herod heard, he said, “This is John, whom I beheaded; he has been raised from the dead!”**

Herod will not be persuaded from his view that this is John the baptist. No doubt this stemmed from the guilt he felt over the killing of John. He had been responsible for John's murder and now John was back to accuse him. This is the first time we learn about John's shocking death and this verse allows Mark to tell us what happened in all its horrific gory detail. Let us continue.

헤롯은 이 사람이 세례자 요한이라는 그의 견해를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의심할 바 없이 이것은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해 그가 느꼈던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John의 살인에 대한 책임이 있었고 이제 John은 그를 고발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한의 충격적인 죽음에 대해 처음 알게 되는 것이며 이 구절을 통해 마가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모든 끔찍하고 유혈이 낭자한 세부 사항에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합시다.

**17 For Herod himself had sent and laid hold of John, and bound him in prison for the sake of Herodias, his brother Philip's wife; for he had married her. 18 Because John had said to Herod, “It is not lawful for you to have your brother's wife.”**

Mark here very neatly tells us the circumstances of John's death. John had been arrested and imprisoned by Herod Antipas. We know that John was imprisoned and later murdered in the fortress palace of Machaerus.

What had John done to warrant being arrested and imprisoned? I'm glad you asked. Are you ready for a seedy and salacious story? Here we go. Herod Antipas was married to Phasaelis the daughter of the Nabatean king Aretas the 4<sup>th</sup>. However on a visit to his half brother Philip's house Herod met and fell into lust for his wife Herodias. Herodias was the daughter of Aristobulus, the son of Herod the Great and Mariamne, and therefore the niece of Herod Antipas. So just in case you're confused, Herod is Herodias' uncle. Herod seduced his niece, that's a little creepy. The two hit it off and decide to leave their respective spouses in order to marry each other. Herod sends Phasaelis back to her father. King Aretas is understandably not very happy about this. He sends up an army and there

is considerable bloodshed before the Romans settle things down.

On many levels what Herod and Herodias did was wrong. But most importantly what they did was contrary to God's laws as given to Moses. You could not take and marry your brother's wife unless he was deceased. This is spelt out for us in the book of Leviticus.

**You shall not uncover the nakedness of your brother's wife; it is your brother's nakedness. (Lev 18:16)**

**If a man takes his brother's wife, it is an unclean thing. He has uncovered his brother's nakedness. They shall be childless. (Lev 20:21)**

John the baptist felt honour bound to stand on the truth of God's Word. Therefore being fearless and bold he confronted Herod and Herodias with their wicked sin. He is a reminder to us all that as Christians we are at times called to speak uncomfortable truth. It is not loving to keep things back or to try to sugar coat sinful practices. Even though we may face pushback, hatred or worse we must always stand up for God's truth. Let us continue.

여기에서 마가는 요한의 죽음의 상황을 우리에게 아주 깔끔하게 알려줍니다.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에게 체포되어 투옥되었습니다. 우리는 요한이 투옥되었고 후에 마케루스의 요새 궁전에서 살해되었음을 압니다. 존은 체포되어 투옥될 것을 보증하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물어봐주셔서 기쁩니다. 초라하고 외설스러운 이야기에 대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시작합니다. Herod Antipas 는 Nabatean 왕 Aretas 4th 의 딸 Phasaelis 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이 복동생 빌립의 집을 방문한 헤롯은 아내 헤로디아를 만나 정욕에 빠졌다. Herodias 는 Herod the Great 와 Mariamne 의 아들 인 Aristobulus 의 딸이었고 따라서 Herod Antipas 의 조카였습니다. 혼란스러운 경우를 대비해 헤롯은 헤로디아의 삼촌입니다. 헤롯이 그의 조카딸을 유혹했는데, 그건 좀 오싹합니다. 두 사람은 그것을 때리고 서로 결혼하기 위해 각자의 배우자를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헤롯은 파사엘리스를 아버지에게 돌려보냅니다. 아레타스 왕은 당연히 이에 대해 그다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는 군대를 보냈고 로마인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상당한 유혈 사태가 있었습니다. 여러 면에서 헤롯과 헤로디아가 한 일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한 일이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형이 죽지 않고는 형의 아내를 취하여 장가들 수 없습니다. 이것은 레위기에 우리를 위해 철자되어 있습니다. 너는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것은 네 형제의 벌거벗음이다. (레 18:16) 남자가 형제의 아내를 취하면 부정한 일입니다. 그는 동생의 벌거벗은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자녀가 없을 것입니다. (레 20:21)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서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대담하고 담대하여 헤롯과 헤로디아의 악한 죄를 대적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때로 불편한 진실을 말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줍니다. 물건을 제자리에 두거나 죄악된 행위를 설탕으로 덮으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반발, 증오 또는 더 나쁜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계속합니다.

**19 Therefore Herodias held it against him and wanted to kill him, but she could not; 20 for Herod feared John, knowing that he was a just and holy man, and he protected him. And when he heard him, he did many things, and heard him gladly.**

Mark here gives us an interesting contrast between the two people John is confronting over their sin. Herodias is bitter and angry. She hates John and the truth he speaks. She wants to see him killed and put of the way.

Herod however is somewhat different. Although he knows what he has done is wrong, and no doubt doesn't enjoy being challenged about it he has respect and even admiration for John. He clearly recognises that John was a good man and that He had been sent by God. He therefore did two things. Firstly he protected John from the wicked schemes of his wife. Secondly he listened to what John had to say. Its vitally important to listen to the truth but its even more important to act upon the truth we have received. Herod heard the truth regarding his sin, recognised the one giving the truth to be just and holy but then did nothing about his sin.

So we find the situation balanced precariously. Herod want to keep John safe and Herodias wants to have John killed. How will Herodias contrive to get Herod to act against his wishes? Let us find out.

여기서 마가는 요한이 그들의 죄에 대해 직면하고 있는 두 사람 사이의 흥미로운 대조를 보여줍니다. 헤로디아는 씹쓸하고 화를 냅니다. 그녀는 John 과 그가 말하는 진실을 싫어합니다. 그녀는 그가 죽임을 당하고 길을 떠나는 것을 보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헤롯은 다소 다릅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있고 의심의 여지 없이 그것에 대해 도 전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John 을 존경하고 심지어 존경합니다. 그분은 요한이 선한 사람이었으며 자신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는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먼저 그는 아내의 사악한 계략으로부터 요한을 보호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요한의 말을 들었습니다. 진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가 받은 진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헤롯은 자신의 죄에 대한 진리를 듣고 진리를 주신 분이 의롭고 거룩하신 분임을 인정했지만 자신의 죄에 대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위태롭게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헤롯은 요한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어하고 헤로디아는 요한을 죽이고 싶어합니다. 헤로디아는 헤로데가 자신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도록 어떻게 궁리할 것입니까? 알아보시다.

## **21 Then an opportune day came when Herod on his birthday gave a feast for his nobles, the high officers, and the chief *men* of Galilee.**

The moment for Herodias to put her evil plan into operation came on the occasion of Herod's birthday. Birthday feasts in the ancient world were lavish occasions. Lots of delicious food and drink were served and in general it was a time for excess and debauchery. To this celebration Herod invited Political magistrates (megistasin), Roman military commanders (chiliarchois), and other prominent men (prōtois). Imagine a lively, colorful party scene with the powerful elite of Galilee being present. What kind of entertainment was provided at this party? Let's read on and find out.

헤로디아가 악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순간은 헤롯의 생일을 맞아 찾아왔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생일 잔치는 호화로운 행사였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음료가 많이 제공되었으며 일 반적으로 과잉과 방탕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축하 행사에 헤롯은 정치 행정관(메기스타신), 로마 군 사령관(킬리아르코이스) 및 기타 저명인사(프로투아)를 초대했습니다. 갈릴리의 강력한 엘리트가 참석하는 활기차고 다채로운 파티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파티에서 어떤 종류의 엔터테인먼트가 제공되었습니까? 계속 읽고 알아보시다.

## **22 And when Herodias' daughter herself came in and danced, and pleased Herod and those who sat with him, the king said to the girl, "Ask me whatever you want, and I will give *it* to you." 23 He also swore to her, "Whatever you ask me, I will give you, up to half my kingdom."**

We are introduced here to Herodias' daughter. Her name was Salome. Interestingly she is not mentioned by name in the bible but later historians such as Josephus have furnished us with her name. It is difficult for us to accurately pinpoint her age here. There is some debate. Some claim she was only in her mid teens whilst others think she was in her early 20's. This is important because as

we read the story we might like to know just how complicit she was in her mother's scheme. Was she just a young girl who did what she was told? Or did she have more input and involvement? I think the later seems more likely.

Salome, the princess remember, comes in to where the men are partying to dance. It's hard for me to convey to you how shocking this would have been. We are not talking about an innocent dance performed by a giggly child. This form of entertainment would normally be performed by prostitutes. The Jews would not have permitted a woman to dance before a group of men. And even most Gentile mothers would have forbidden a daughter to do what the daughter of Herodias did. Although the style or type of dance is not specified most scholars are imagining an erotic, sensual dance. The kind of dance that excited the passions of men. This is conveyed to us here by the information that Herod was "pleased" by the dance. Herodias knew what kind of man her husband was.

When the dance is over Herod makes a very rash and foolish promise to Salome.

No doubt he was somewhat drunk and excited by the dance. His promise, made in front of all these important men is to reward Salome with whatever she wants. The expression here "up to half my kingdom" is an idiom that in essence means "A gift of great personal sacrifice." He wouldn't, in fact couldn't give away half his kingdom because as a client king he did not have that kind of authority. Let us see what reward Salome wants.

여기서 우리는 헤로디아의 딸을 소개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살로메였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녀의 이름은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요세푸스와 같은 후기 역사가들은 그녀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여기서 그녀의 나이를 정확히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약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10대 중반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20대 초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를 읽을 때 그녀가 어머니의 계략에 얼마나 연루되었는지 알고 싶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녀는 시키는 대로 하는 어린 소녀였습니까? 아니면 더 많은 의견과 참여가 있었습니까? 나는 후자가 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주가 기억하는 살로메는 남자들이 춤을 추기 위해 파티를 벌이는 곳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지 여러분에게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킁킁 웃는 아이가 추는 천진난만한 춤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형태의 오락은 일반적으로 매춘부가 수행합니다. 유대인들은 여자가 남자들 앞에서 춤추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방인 어머니들도 헤로디아의 딸이 한 일을 딸이 하는 것을 금지했을 것입니다. 춤의 스타일이나 유형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에로틱하고 관능적인 춤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의 열정을 자극하는 그런 춤. 이것은 헤롯이 그 춤으로 "기뻐"했다는 정보에 의해 여기에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헤로디아는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무도회가 끝나자 헤롯은 살로메에게 매우 경솔하고 어리석은 약속을 합니다. 의심할 바 없이 그는 춤에 다소 취했고 흥분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중요한 남자들 앞에서 한 그의 약속은 살로메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보상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의 왕국의 절반까지"라는 표현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큰 희생의 선물"을 의미하는 관용구입니다. 그는 의뢰왕으로서 그러한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의 왕국의 절반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살로메가 원하는 보상이 무엇인지 봅시다.

**24 So she went out and said to her mother, "What shall I ask?" And she said, "The head of John the Baptist!" 25 Immediately she came in with haste to the king and asked, saying, "I want you to give me at once the head of John the Baptist on a platter."**

Women were not present at these kinds of banquets. This is why Salome has to leave the room to speak to her mother. But it also reminds us that this was all a part of Herodias' plan. She was



waiting in the wings ready to coach her daughter.

What would you want as a reward for a job well done? An envelope stuffed with cash. A meal out at a nice restaurant. Some nice new clothes. Some expensive jewellery, perfume or aftershave.

Herodias does not want any of these things. What she wants is her revenge on John. She sends Salome quickly back to demand the head of John the baptist. Why the haste? Well she wanted to force Herod to act whilst in this particular condition and setting. Later when he sobered up he might change his mind. Once he was alone and away from his political peers he might back away from the oaths he had sworn.

As an interesting aside I want you to notice what each woman asks for. Herodias asks for John's head. Literally that he be killed. It is Salome who adds that she wants the head on a plate. It seems that she seeks to further humiliate John and her step father by equating John's death with that of an animal being prepared for the table. It would be horrendous just for John to be brutally killed but parading his severed head on a plate adds an extra layer of horror. What will Herod do?

이런 종류의 연회에는 여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 이것이 살로메가 어머니와 이야기하기 위해 방을 떠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이 모든 것이 헤로디아의 계획의 일부였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녀는 딸을 지도할 준비가 되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한 일에 대한 보상으로 무엇을 원하십니까? 현금으로 채워진 봉투. 좋은 레스토랑에서 외식. 좋은 새 옷. 일부 고가의 보석, 향수 또는 애프터셰이브. Herodias 는 이러한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존에 대한 복수입니다. 그녀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기 위해 살로메를 재빨리 돌려보냅니다. 왜 서둘러? 글썽, 그녀는 헤롯이 이 특별한 조건과 환경에서 행동하도록 강요하기를 원했습니다. 나중에 술이 깨면 생각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일단 그가 혼자가 되고 그의 정치적 동료들과 떨어져 있게 되면 그는 그가 맹세한 맹세에서 물러날지도 모릅니다. 흥미로운 여담으로 각 여성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기를 바랍니다. Herodias 는 John 의 머리를 요구합니다. 말 그대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녀가 접시에 머리를 원한다고 덧붙이는 것은 살로메입니다. 그녀는 John 의 죽음을 식탁을 준비하는 동물의 죽음과 동일시함으로써 John 과 그녀의 의붓 아버지를 더욱 모욕하려는 것 같습니다. John 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한 일이겠지만 잘린 그의 머리를 접시 위로 행진하는 것은 공포의 층을 더합니다. 헤롯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26 And the king was exceedingly sorry; yet, because of the oaths and because of those who sat with him, he did not want to refuse her. 27 Immediately the king sent an executioner and commanded his head to be brought. And he went and beheaded him in prison, 28 brought his head on a platter, and gave it to the girl; and the girl gave it to her mother.**

Herod's foolish lust and stupidity have backed him into a terrible corner. He cannot resolve the situation without losing face, or being shamed in front of his guests. If he tries to laugh it off his guests will see him as a weak man who does not keep his word. He has made a repeated public oath to give the girl what she asks for. So even though he is deeply sorry what can he do. Actually the Greek word used here for "sorry" is *perilupos* (per-il'-oo-pos). I think the English word "sorry" doesn't really fully capture its meaning. It describes a feeling of "intense sadness or sorrow," or even "to be so sad that one wishes to die." Herod did not really want to have John killed, certainly he wanted John out of the way but not necessarily dead. But his foolish arrogance and pride mean that this is the only action he can take. He has to be seen to be doing what he swore to do. This is one of the reasons why the bible warns us about swearing oaths (Matthew 5:33-37, James 5:2). As followers of Christ we should be people of honour and integrity. Our simple yes or no should be sufficient. There is no need to make elaborate oaths or promises.

Herod then despatches an executioner and John, an innocent man is brutally murdered. His freshly severed head is put on a plate and then given to Salome. She in turn gives it to her mother.

A closing word here about Herod and Herodias. We meet Herod on one more occasion in the gospels. At the trial of Jesus Herod is eager to see the Lord Jesus perform a miracle (Luke 23:6-12). The Lord Jesus refuses to even speak with the vile murderous adulterer.

In 39 AD Herod went too far and his nephew Herod Agrippa denounced him to the Roman authorities for a conspiracy. As punishment Herod Antipas and Herodias were sent into exile in Gaul. Later some records state they were sent to Spain. As to how they died we do not know what happened to Herod. However according to the scholar Cornelius À Lapide Herodias had a most unpleasant death. Apparently she was dancing upon the frozen river Sicoris when the ice cracked and she fell through to her death. Because we serve a just and holy God we can be assured that both answered for their wicked acts. Let us conclude today's passage with verse 29.

헤롯의 어리석은 정욕과 어리석음이 그를 끔찍한 구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체면을 잃거나 손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고는 상황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가 그것을 비웃으려고 하면 손님들은 그를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쁜 사람으로 볼 것입니다. 그는 소녀가 요구하는 것을 주겠다고 거듭 공개적으로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우 미안하지만 그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안하다"에 대해 그녀에게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perilupos*(per-il'-oo-pos)입니다. 나는 영어 단어 "sorry"가 그 의미를 완전히 포착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강렬한 슬픔이나 슬픔" 또는 심지어 "너무 슬퍼서 죽고 싶은" 느낌을 묘사합니다. 헤롯은 정말로 요한을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그는 요한을 비켜주기를 원했지만 반드시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리석은 오만함과 자만심은 이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임을 의미합니다. 그는 맹세한 바를 행하는 것으로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맹세에 대해 경고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마 5:33-37, 약 5:2).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우리는 명예와 성실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간단한 예 또는 아니오로 충분해야 합니다. 복잡한 맹세나 약속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다음 헤롯은 사형 집행관을 파견하고 무고한 요한은 잔인하게 살해됩니다. 갓 잘린 그의 머리는 접시에 담겨 살로메에게 주어집니다. 그녀는 차례로 그것을 어머니에게 줍니다. 여기서 헤롯과 헤로디아에 대한 결론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헤롯을 한 번 더 만납니다. 예수의 재판에서 헤롯은 주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눅 23:6-12). 주 예수님은 비열하고 살인적인 간음자와 대화하는 것조차 거부하십니다. 주후 39년에 헤롯은 너무 지나쳤고 그의 조카 헤롯 아그리파는 그를 음모 혐의로 로마 당국에 고발했습니다. 처별로 Herod Antipas와 Herodias는 갈리아로 추방되었습니다. 나중에 일부 기록에는 그들이 스페인으로 보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는 헤롯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학자 Cornelius À Lapide에 따르면 Herodias는 가장 불쾌한 죽음을 겪었습니다. 분명히 그녀는 얼어붙은 Sicoris 강에서 춤을 추고 있었는데 얼음이 갈라져 그녀가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그들의 악한 행위에 대한 응답을 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29 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 **29 When his disciples heard of it, they came and took away his corpse and laid it in a tomb.**

Mark brings this horrendous story to a close with the only moment of kindness and compassion.

John's followers must have been praying and fasting in the hope that God would intervene and John would be released. So we can only imagine their horror when they learn about how their teacher had been martyred. They showed great courage in coming to claim his body. They could not be sure that

the wicked Herod might not imprison or even kill them. They took John's body and gave it a proper burial. It reminds us that all people are created in God's image. Therefore whether alive or dead they are always worthy of being treated with dignity and respect.

Let me finish today's study by telling you how the Lord Jesus reacted to John's death. To find this we need to look at Matthew's gospel. In chapter 14 we read.

**12 Then his disciples came and took away the body and buried it, and went and told Jesus.**

**13 When Jesus heard it, He departed from there by boat to a deserted place by Himself. But when the multitudes heard it, they followed Him on foot from the cities. (Matt 14:12-13)**

When the Lord Jesus received the news about John He went to a quiet place alone. In that place no doubt He mourned and wept over John. The candle of John's life burnt short but bright. Because he lived and died to illuminate the truth of Jesus Christ His candle will never be extinguished. May we live and learn from his example.

Mark 는 친절과 연민의 유일한 순간으로 이 끔찍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요한의 추종자들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요한이 풀려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스승이 어떻게 순교했는지를 알게 될 때 그들의 공포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시신을 찾으러 오는 데 큰 용기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사악한 헤롯이 그들을 투옥하거나 죽이지 않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요한의 시신을 가져다가 적절하게 매장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그러므로 살아 있든 죽든 그들은 항상 품위와 존중으로 대우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요한의 죽음에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을 찾기 위해 우리는 마태복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4 장에서 우리는 읽었습니다. 12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13 예수께서 들으시고 거기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가시니라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예수를 좇으니라 (마태복음 14:12-13) 주 예수님은 요한에 대한 소식을 들으셨을 때 혼자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틀림없이 요한을 위해 슬퍼하시고 우셨습니다. 요한의 삶의 촛불은 짧지만 밝게 타올랐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밝히기 위해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의 등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본에서 생활하고 배우기를 바랍니다

### **Things to think about**

I have two comments to make on today's passage.

#### **1 Why would God allow John to die in this way?**

This is perhaps a very obvious but also a very human question to ask. We accept as believers that God is sovereign and in control of all things. Therefore why didn't He protect or shelter His faithful servant John? Even if he had to die, why did He not keep him from such a terrible death? There are no simple answers to these questions. God is not limited by the actions and deeds of human beings. If God wanted to preserve the life of John then whatever Herod wanted to do was irrelevant. So, we have to accept that God allowed this to happen. The reasons why may not be obvious to us. We are finite and limited in what we can perceive and understand. God does not have our limitations. So we cannot know how the ripples of John's death stretched out and impacted the Kingdom. All we can do is accept that God always knows and does what is best.

이것은 아마도 매우 명백하면서도 매우 인간적인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만물을 주관하심을 믿는 자로서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왜 그분은 그의 신실한

중 요한을 보호하거나 보호하지 않으셨습니까? 죽어야 하는 상황이 닥치더라도 왜 그런 끔찍한 죽음을 막지 않으셨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간단한 대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과 행동에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요한의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하셨다면 헤롯이 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유한하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의 죽음의 물결이 왕국에 어떻게 퍼지고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항상 최선을 아시고 행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 **2 We must speak the truth even when there are consequences**

It was really at middle school that I first realised just how different Christians were. At elementary school I had not noticed the difference, but at middle school I could clearly discern that a Christian life was not like a secular life. At that age the differences were evident in the language and actions that one could engage in. The other children for example enjoyed coarse language and jokes.

I knew those words were displeasing to God. Petty stealing or minor acts of vandalism didn't seem to bother the other boys. But I knew they were wrong. They made me uncomfortable.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I had a choice to make. Be like everyone else or stand up and stand out.

John the baptist was also called to make a choice. He was uncomfortable with Herod's lifestyle. He knew it was wicked and dishonoured God. What was John to do? The easy thing would be to keep quiet. Don't rock the boat. The difficult thing would be to speak truth to power. That would require courage and boldness. It was also the right thing to do, the thing that God had empowered John to do. There are always consequences of speaking God's truth. You probably won't end up having your head cut off but there are costs. At middle school maybe people would ostracise me or look at me as though I was weird. You might lose influence or power at work. Maybe you might even lose your job. You certainly may lose friends. But speaking the truth honours God and pleases Him. May this be our desire in all circumstances.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다른지 처음 깨달은 것은 중학교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별 차이를 못 느꼈지만, 중학교 때는 기독교인의 삶이 세속적인 삶과 같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나이에 참여할 수 있는 언어와 행동에서 차이가 분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아이들은 거친 언어와 농담을 즐겼습니다. 나는 그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소한 도둑질이나 사소한 기물 파손 행위는 다른 소년들을 괴롭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는 선택을 해야 했다. 다른 사람들과 같거나 일어서서 눈에 띄십시오. 세례 요한도 선택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헤롯의 생활 방식이 불편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사악하고 하나님께 불명예를 돌리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요한은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쉬운 것은 침묵을 지키는 것입니다. 보트를 흔들지 마십시오. 어려운 것은 권력에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또한 옳은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그 일을 하도록 권능을 주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것에는 항상 결과가 따릅니다. 아마 머리가 잘리지는 않겠지만 비용이 듭니다. 중학교 때는 사람들이 저를 따돌리거나 이상하게 쳐다보곤 했어요. 직장에서 영향력이나 권한을 잃을 수 있습니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확실히 친구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것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